

지역 소식

새로운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2020년 8월, 새로운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이 조직되었다



엘 토드 버지 장로 부부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엘 토드 버지 장로는 2019년 4월 6일, 59세의 나이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다. 부름받을 당시 그는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지역에서 칠십인 제5정원회 일원이자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버지 장로는 1984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 베인앤컴퍼니 일본 지사, 씨티은행 N.A., GE 캐피탈 애틀랜타 및 일본 지사 등에서 근무했다. 2003년에는 도쿄 스타 은행의 사장 겸 CEO가 되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사회 의장직을 역임하다가 2011년에 은행에서 은퇴했다. 그는 이 기간에 하와이 항공사의 이사회 일원이기도 했다.

버지 장로는 일본 후쿠오카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스테이크 청남 회장, 장로 정원회 회장, 스테이크 집행 서기, 감독단 보좌, 감독, 스테이크 회장, 일본 도쿄 선교부 회장 등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1959년 12월 29일, 캘리포니아 피츠버그에서 출생한 로런스 토드 버지는 1981년에 로리 케이프너와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여섯 자녀를 두었다. ■



다카시 와다 장로 부부
북 아시아 지역 회장

다 카시 와다 장로는 2018년 3월 31일, 53세의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다. 부름받을 당시 그는 복음 교리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와다 장로는 1965년 2월 5일에 겐조 와다와 가주코 와다 사이에서 태어나 불교 집안에서 성장했다. 그는 15세에 선교사들을 처음 만나 복음을 배웠으며, 17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교회에 가입했다.

1990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언어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6년에는 동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와다 장로는 미국과 일본 소재의 다국적 기업에서 몇몇 직책에 종사했으며, 북미 서 지역, 북미 북서 지역, 북아시아 지역에서 교회 실무 책임자 직책을 맡기도 했다.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북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것을 비롯하여, 와다 장로는 지부 회장, 감독, 고등평의원, 세미나리 교사, 와드 청년 독신 성인 고문, 복음 교리반 교사 등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 도쿄 남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1994년에 일본 도쿄 성전에서 나오미 우에노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다. ■



제임스 알 래스밴드 장로 부부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제 임스 알 래스밴드 장로는 2019년 4월 6일, 56세의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다. 부름받을 당시에는 유타 남 지역에서 지역 칠십인이자 칠십인 제5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래스밴드 장로는 1986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영어와 근동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1989년에 하버드 법학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퍼킨스 코이(Perkins Coie)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95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 제이 르우벤 클라크 법학 대학원의 교수직을 맡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법학 대학원 학장으로 재직했다. 가장 최근에는 브리검 영 대학교 학술 부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래스밴드 장로는 한국 서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것을 비롯해 와드 선교 책임자, 와드 집행 서기, 장로 정원회 회장단 보좌, 고등평의원, 감독,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와드 청남 회장, 감독단 보좌, 스테이크 회장, 복음 교리 교사, 스카우트 단장 보조 등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1963년 3월 20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난 제임스 리처드 래스밴드는 1984년에 메리 다이안 윌리엄스와 결혼해 슬하에 네 자녀를 두었다. ■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과 함께하는 온라인 전국 영적 모임

지난 6월 28일 일요일,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과 함께하는 온라인 전국 영적 모임이 열렸다. 지역 회장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한편, 곧 재개될 교회 대면 모임에 앞서 회원들을 준비시키고 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모임을 마련했다. 지역 회장단은 각각 미국, 일본, 한국의 자택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 말씀은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한 시간 반 동안 생중계되었다.

지역 회장단은 성도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것을 강조했다.

모임 당시 지역 회장단 제2보좌였던 엘 토드 버지 장로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마음에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놓인 환경과 상관없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며 성도들을 격려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기쁨과 영적 생존” 2016년 10월 연차 대회)

당시에 지역 회장단 제1보좌였던 다카시 와다 장로는, 이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시간을 내어 개인적인 성찰의 시간”을 보낼 것을 우리에게 권유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2020년 6월 16일 church news)

“이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었습니까? 넬슨 회장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Hear Him)’라고 가르치셨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그의 말을 듣는 데 의도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그의 말을 들으라”, 2020년 4월 연차대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의 말을 [듣고]’ 인식할 기회가 늘었기를 바랍니다.”

북 아시아 지역의 회장으로 봉사하다가, 8월 1일부터 필리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최윤환 장로는 와다 장로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의 말을 들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사랑하는 손자가 크게 부상을 입었던 가슴 아픈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는 “[여러분의] 최근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일상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상에 기적이 찾아오며 고통, 연약함과 유혹에 맞설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최 장로는 한국의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말씀을 마무리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

위 영적 모임은 youtu.be/uN_ObDOV1dY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봉사의 기회로 인도됨

서울 서 스테이크 인천2 와드 김규현 장로



한 국 홍보부의 새로운 봉사 선교사로 서울 서 스테이크 인천2 와드의 김규현 형제가 부름받았다.

지난 3월, 그동안 홍보 선교사로 봉사한 윌러 장로 부부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로 인해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김규현 장로는 이들에 이어 교회 홍보부에서 봉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외무 공무원이었던 김 장로는 바쁜 공직 생활을 이어 오면서, 퇴직한 뒤에는 교회 봉사에 좀 더 매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 후에도 교회를 위한 본격적인 봉사에 참여하기 힘들었다. 뜻밖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김 장로를 봉사의 기회로 인도했다. 그는 봉사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이 부름이 매우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하지만 개종한 이후로 퇴직 후에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봉사 선교사로서 주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김 장로의 부름은 3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활발한 교회 홍보 활동이 제한된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회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교회 홍보 위원회와 온라인으로 자주 만나며 올 한해 홍보 활동의 구체적 방향에 관해 협의 중입니다. 속히 팬데믹 사태가 진정되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실질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김규현 장로는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주류로 두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칭했다. 특히 “나날이 물몬경에 나오는 니허나 코리호어와 같은 적 그리스도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으며, 진리와 복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전했다.(엘마서 1:1~15; 30:12~18) 김 장로는 이에 대해 “홍보 선교사로서 교회와 복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하고,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김규현 장로는 1980년부터 외무 공무원으로서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외교안보 수석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5월에 공직에서 퇴임했다. 1995년에 침례받았으며, 워싱턴 D.C.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주일학교 교사 등으로 봉사했다. ■

주님의 포도원에서 봉사하는 기쁨

서울 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오희근 장로



지 난 3월에 부름받은 김규현 장로와 함께 오희근 형제가 교회 홍보부의 봉사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이들이 담당할 구체적인 활동은 교회의 대외 홍보 활동, 즉 정부 및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종교 담당 기자 등과 교류하고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북 아시아 지역 홍보 책임자로 근무하다 은퇴한 오 장로는 은퇴 후 즉시 아내와 함께 부부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부가 함께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은 잠시 미루게 되면서 우선 오 장로가 먼저 봉사 선교사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은퇴 후에 달콤한 휴식 대신 봉사를 선택한 오 장로는 봉사 선교사로 지원한 동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포도원은 크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일꾼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마태복음 9:35~38) 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봉사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3년간 북 아시아 지역 홍보 책임자로서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교회 홍보 활동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저는 지역 홍보 책임자로 지난 3년간 일하면서 대외적인 교회의 평판을 높이는 것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았으며, 다른 종교의 지도자, 종교학자, 종교 담당 기자들과

좋은 관계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봉사 선교사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덧붙여 “홍보 관련 업무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팀워크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한국 홍보 위원회의 팀워크가 아주 좋기 때문에 저는 그 팀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평판을 높이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오희근 장로는 북 아시아 지역 홍보 책임자, 서울 성전 사무장, 한국 관리본부 인사부장, 시설부장, 배부과장, 구매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한국화장품과 에바스화장품 총무부에서 일한 바 있다. 또한 교회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 보좌, 고등평의원, 장로정원회장, 주일학교 교사, 선교책임자 등의 부름을 수행했다. ■

렉시 워커와 친구들, 한국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위로의 음악을 선물하다

지난 6월 27일 토요일, 북 아시아 지역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위한 ‘렉시 워커와 친구들’ 온라인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지역 회장단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본 콘서트를 마련했다.

이 공연에는 13세에 소니 뮤직과 계약한 유망한 후기 성도 가수인 렉시 워커와 두 명의 후기 성도 싱어송라이터, 아담 텔리와 메들린 페이지가 출연했다. 공연은 미국 유타의 소울라리움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어 한국, 일본, 몽골, 괌 및 미크로네시아의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었다.

당시 북 아시아 지역 회장 최윤환 장로는 영상으로 감사 인사와 말씀을 전했다. “북 아시아 지역의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가까이 음악적 재능을 나누어 준 렉시, 아담, 메들린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영혼이 고양됩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주님의 영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음악을 듣고 그 속에서 ‘그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렉시, 아담, 메들린은 자작곡을 비롯하여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비틀즈 노래, 영화 “위대한 쇼맨” 메들리, 청소년 상호 향상 음악 등 열다섯 곡 이상의 노래를 불렀다. 렉시는 한국과 일본의 회원들과 듀엣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노래 공연뿐만 아니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었다. 북 아시아 지역의 청소년, 청년 몇 명이 고민거리나 궁금한 점을 질문했으며, 가수들은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들려주어 국경을 뛰어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렉시는 두 시간 동안 이어진 공연을 마무리하며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연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하는 한편, “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코로나19로 생긴 여유 시간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자”고 온라인 청중을 격려했다. ■

이 콘서트는 fb.com/churchofjesuschristkor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4명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부름받은 몇몇 선교사들은 국내 임시 선교부에서 봉사를 시작함)



김민성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강북1 와드
부산 선교부



김시현 장로
창원 스테이크
진해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임석진 장로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서울 선교부



조현주 자매
전주 스테이크
군산 와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임시: 서울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서울 스테이크

일산 와드 감독: 박광선 형제(전임: 권상조 형제)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1 와드 감독: 김현승 형제(전임: 김정기 형제)

송파 와드 감독: 최충일 형제(전임: 김인회 형제)

더 많은 지역 소식 기사와 사진을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fb.com/churchofjesuschristkor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본부): 02-2232-1441(전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카카오톡 채널 검색)
- 배부 센터: 080-238-8000